

문화예술전문매거진 <THE MOVE>와 함께 하는

이달의 추천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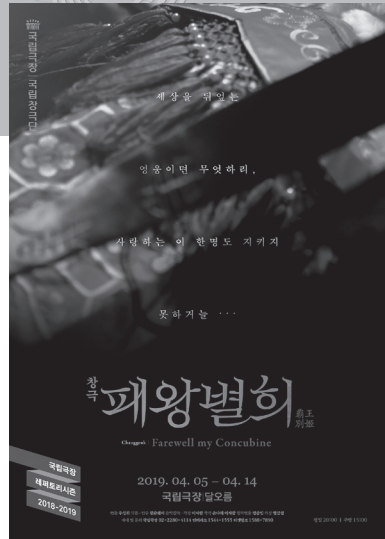
123

1 중국 고전 경극 <패왕별희>, 판소리 창극으로 재탄생 국립창극단 <패왕별희>

중국의 대표적 경극 레퍼토리 '패왕별희'를 창극화한 신작 창극 <패왕별희>가 4월 5일부터 14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무대에 올린다. 그간 '트로이의 여인들' '소녀가' '메디아' '변강쇠 점 찍고 웅녀' 등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는 공연을 선보여 왔다면, 이번에는 남성의 소리가 중심이 되는 창극 제작을 통해 웅장하고 힘 있는 소리의 매력을 보여주고자 한다. 창극 <패왕별희>는 대만 최고의 배우이자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는 우싱귀(吳興國)

와 국립창극단이 약 2년간 공

을 들인 작품이다. 초한(楚漢) 전쟁, 호걸들의 진검승부 속에서 초나라의 패왕 항우와 그의 연인 우희의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별을 그린 중국의 대표적인 경극 레퍼토리 '패왕별희'를 정통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창극으로 재해석한다. 동명의 영화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패왕별희' 역시 이 경극 희곡을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역사에 남은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부분만을 압축해 창극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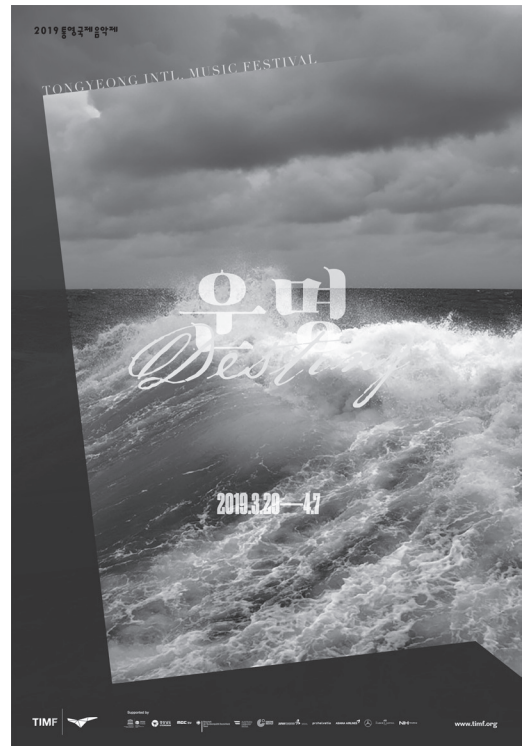


중국 전통극 양식인 경극의 현대화 작업을 통해 세계 예술계에 이름을 널리 알린 우싱귀가 연출·출연을 맡은 작품들은 대만 현지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세계 유수의 극장과 페스티벌에서 초청 받은 바 있다. 영화와 연극 무대를 누비며 활약하고 있는 그가 한국 정통 관소리를 기반으로 한 창극을 어떻게 연출해낼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연출 우싱귀는 2003년 ‘리어왕’, 2007년 ‘고도를 기다리며’ 등의 작품으로 여러 차례 한국에 방문한 적 있지만 창극 연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극 ‘패왕별희’로 범아시아로의 예술로 확장을 꾀할 뿐 아니라 창극이 가진 강력한 힘과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방위 아티스트 이자람이 다시 한 번 창극 단과 의기투합해 ‘패왕별희’의 작창과 음악감독으로 참여한다. 영화 ‘라스트 템페이션’ ‘와호장룡’으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쓸며 의상·미술상을 수상한 세계적 아티스트 예진텐(Tim Yip)이 의상디자이너로 참여해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직접 한국의 원단시장을 다니며 의상 소재를 꼼꼼히 고를 만큼 작품에 열정을 쏟고 있는 그는 중국 특유의 화려한 양식과 한복의 아름다운 라인을 살린 독특한 스타일을 가감 없이 선보일 예정이다. 영상디자이너 조수현의 유려한 영상과 조명디자이너 마선영의 강렬한 조명, 대만 출신 창웨이웬의 모던한 무대디자이너가 살아 숨 쉬는 무대미술 또한 주목할 만하다.

2 통영에서 10일간의 음악여행 2019 통영국제음악제(TIMF) : 운명

2019 통영국제음악제는 베토벤 제5번 교향곡 ‘운명’을 개막작으로 시작해 ‘운명(Destiny)’을 주제로 열흘간(3.29-4.7) 통영국제음악당에서 펼쳐진다.



개막공연에서는 미하엘 잔덜링이 지휘하는 스위스 명문 악단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을 비롯해 하인츠 홀리거 ‘장송 오스티나토’(아시아 초연), 그리고 스타 피아니스트 ‘베조드 압두라이모프’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한다. 이튿날 예정된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 두 번째 공연에서는 소프라노 서예리, 바리톤 로만 트레켈, 안산시립합창단과 원주시립합창단의 협연으로 윤이상 ‘화염 속의 천사’와 ‘에필로그’, 그리고 브람스 ‘독일 레퀴엠’이 연주된다.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루체른의 유명한 공연장인 KKL의 상주 단체로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관현악단이다. 음악 도시로 유명한 루체른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다지고 있으며, 정기공연뿐 아니라 루체른 호수에 영감을 얻은 러시아 실내음악을 소개하는 ‘루체른 마법의 호수 페스티벌’을 운영하고, 또한 루체른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11/12년 시즌부터 제임스 개피건이 음악감독으로서 악단을 이끌고 있다.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공연되는 오페라 ‘바다에서 온 여인’은 윤이상의 수제자였던 세계적 작곡가 도시오 호소카와의 작품이다. 일본 전통 가무극 노(能)를 대표하는 ‘후타리 시즈카’(二人靜)를 오페라로 재창작한 이 작품은 ‘시즈카 고젠’의 혼백이 ‘헬렌’과 나누는 대화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소프라노 사라 베게너, 노(能) 전승자 아오키 료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수석 플루티스트 김유빈, 성시연이 지휘하는 TIMF 앙상블 등이 출연하며 벨기에 출신 토마스 이스라엘이 연출한다.

바그너 오페라 ‘발퀴레’ 1막이 연주될 폐막 공연에서는 알렉산더 리브라이히가 지휘하는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등 세계 무대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은 한국인 가수 3인방인 테너 김석철(지크문트), 소프라노 서선영(지클린데), 베이스 전승현

(훈딩) 등이 출연한다. 4월 5일에 예정된 ‘통영페스티벌 오케스트라 I’ 공연에서는 스타 바이올리니스트 베로니카 에베를레가 협연하는 알반 베르크 바이올린 협주곡과 더불어 윤이상 ‘유동’,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죽음과 변용’ 등이 연주된다.

여기에 독일문화원과 함께 아시아의 젊은 작곡가들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아시아 작곡가 쇼케이스’, 그리고 거장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클라리네티스트 벤젤 폭스, ‘엘 시스테마 키드’이자 베를린필 최연소 단원 기록을 깨트린 천재 베이시스트 에딕슨 루이스,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첼리스트 임희영, 세계 최정상급의 현대음악 전문 현악사중주단인 아르티티 콰르텟 등의 다채로운 공연과 이색 공연으로 로스 로메로스 기타 콰르텟, 그자비에 드 메스트르 & 루세로 테나 듀오의 플라멩코 공연 등 다양한 음악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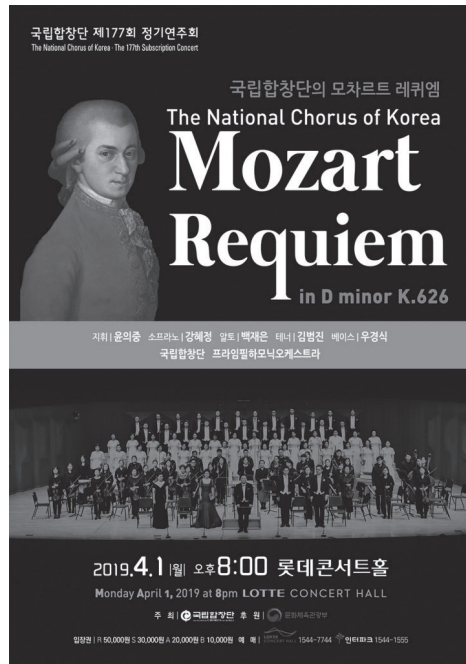
3 국립합창단의 모차르트 레퀴엠

국립합창단은 4월 1일, 롯데콘서트홀에서 모차르트 레퀴엠을 선보인다. 모차르트 레퀴엠은 모차르트가 1791년 봄에 의뢰받아 작품에 몰두하던 중, 건강 악화로 그해 12월, 미완성으로 남긴 채 사망하게 되어 모차르트의 사후에 그의 제자이면서 당시 비엔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쥐스마이어(Franz Xaver Süssmayr)가 작품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레퀴엠은 라틴어로 ‘안식’을 의미하며, 죽은 이의 넋을 달래는 진혼곡이다. 서양 역사상 다양한 레퀴엠이 작곡되었지만 모차르트의 레퀴엠은 후세의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훌륭한 종교음악이다. 국립합창단은 깊이감을 더해 미완성의 원작을 충실히 재연하여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1775년 작곡한 참새미사(Mass in C major, K.220 “Sparrow”)도 선보인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소프라노 강혜정, 알토 백재은, 테너 김범진, 베이스 우경식 그리고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함께한다. 특히 국립합창단이 롯데콘서트홀에서 갖는 첫 정기연주회로 어떤 소리로 청중들을 사로잡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윤의중 예술감독이 이끄는 국립합창단은 우

리나라 합창음악의 전문성과 예술성 추구를 위해 1973년에 창단된 전문 합창단의 효시로, 합창음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한국 최고의 프로 합창단이자 세계 최고의 전문 합창단이다. 르네상스부터 현대까지의 폭넓은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합창곡 개발과 한국적 특성과 정감을 표출하는 방법, 해석법의 정립 등 합창음악 발전과 국내외로 한국합창 보급과 세계화에도 힘쓰고 있다.



고시계는

문화예술전문매거진

세상을 움직이는 문화예술전문지
MOVE 와

‘문화로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공연 및 더무브 구독 문의: 02.523.7356